

2020 년 3 월 5 일



Before and After !!

램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치과가 곧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여러분께

대략 2 주전 치과 셋업의 기초작업이 끝난 후 사진과 함께 기도편지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 주간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편지를 드리는것 자체가 망설여졌습니다. 웬지 한가하게 스교지의 치과얘기나 할 때가 아닌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말이지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며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편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흔히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하지만 그저 지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이 또한"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식을 나눕니다.

달력에 적힌 글자조차 예쁜 2020 년이 시작되고 램 병원에도 여러가지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과에는 몇몇가지 꼭 필요했던 장비들이 들어왔고 특별히 정말 낡아서 리딩조차 힘들었던 엑스레이를 디지털 엑스레이로 교체하는 획기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진 하루에도 몇번씩 달려가서 컴퓨터를 한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는 테크니션에게 이런 경우엔 왼쪽 클릭을 두번 하라던가 이런 경우엔 이렇게 스크롤을 다운하라던가.. 하는 것 까지 가르쳐줘야 하긴 하지만 옥조같은 곳에 보관된 인화액, 고정액을 써가며 필름을 인화하던

그분들께 새로운 기계를 다루는 기쁨은
아주 커 보입니다.



치과도 모든 구매절차를 마치고 덴탈
유닛체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비가
설치되어서 45년 램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치과 개원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동문 선후배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여러모양의 너무 큰
수고를 해 주었고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pecially 치과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치과 셋업을 위한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을 도와주고
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수도 다카에서
10 시간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보니 A/S 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병원의 정비팀에게
모든 장비들을 다 분해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덕분에 이후에

돌이켜 보면 불과 석달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고
종종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변화의
공을 돌리고 기도 하지만 사실 지난
3 개월은 뼈아픈 깨달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6 년
인도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것 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개되기도 하는 이곳의
상황에 그 경험을 무턱대고 적용하려는
실수들을 반복했고 때론 저희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받아 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답답해 하며 쉽게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하루, 역시 너무 빈한 문제를
답답할 정도로 더디게 진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불만 가득한 맘으로 있는 제게
주님께선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게 있는 보리떡 다섯덩이와

물고기 두마리...저는 너무나 선한 의도와 희생적인 마음으로 그 도시락을 나누고 싶어했고 조금씩 떼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고마와 했고 저는 기쁜 마음에 마지막 한조각까지 탈탈 털어 나누었지요, 제 배고픔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구요. 그런데...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주 약간의 허기는 면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팠으며 이제 저는 더이상 나눌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탈했습니다. 내 모든걸 나누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도시락을 내게 다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너의 경험이든, 지식이든, 전문성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그것이 무엇이든 네가 직접 나누어 주려 하지 말고 내게 다오. 너는 그저 내가 네 손에서 받아든 것에 축복하고 그것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처음 스교를 떠날 때 부터 최근까지 많은 분들이 해주신 헌금의 대부분을 저희는 아직까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섬겼던 병원에서는 저희 단체에서 많은 액수를 헌금해 주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헌금할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방글라데시로 오면서 그동안 모아 두었던 헌금들을 내과의 장비구매와 치과의 셋업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마치 내 도시락을 열어 내 손으로 직접 다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았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거지요. 그래서 제 경험에 근거해 내 맘에 맞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과 그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을 불만스러워 했던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후 부터 매일 제 손에 있는것--하루 만큼의 시간과 에너지,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 저의 어쩌면 선한 의도나 동기 까지도... 다 주님앞에 내어 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성공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실수를 좀 더 예민하게 깨닫게 되었고, 실수를 깨달았을 땐 빨리 돌이키려 애쓰고 있으니 조금씩 더 나아지기를 소원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직접 축사하시고 나누시는 떡과 물고기를 조금씩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사실 이번 기도편지는 다른 후배 스교사들의 멋진 기도편지 처럼 글은 조금 쓰고 사진은 많이 올리리라 다짐했는데 어쩌다보니 또 글이 길어졌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아날로그 감성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수 밖에요. ㅎㅎ

어둠의 세력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묶어 놓으려 애쓰지만 이런 어둠 가운데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이 지슈 (O수 승리!)

신창은,신태희 올림

기도해주세요.

1.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 제가 스교지에 있다는 핑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엔 너무 소홀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친구와 동역자들을 위한 중보의 특권과 의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개인적인 기도제목을 따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2. 4/6 일 큰 딸의 치과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3. LAMB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변화들이 저희들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속도를 맞추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어서 모두에게 행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4. 아직까진 코로나 확진자 제로인 방글라데시를 끝까지 지켜 주셔서 열악한 의료상황 가운데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